

청년이 함께 만드는 임실N치즈축제

임실군, 제1기 청년기획단 발대식 개최... 축제 방향성 · 의견 나뉨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지역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군은 최근 임실창고 1964에서 ‘임실N치즈축제 제1기 청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축제의 방향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故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로 마을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를 만들어 냈던 개척 정신을 계승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기 청년기획단은 임실N치즈축제를 사랑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 청년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축제 프로그램 제안, 홍보 콘텐츠 제작, 현장 운영 참여 등 축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축제의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축제의 지속가능성



임실군은 임실창고 1964에서 임실N치즈축제 제1기 청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N치즈축제는 지정환 신부가 가난했던 임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양 두 마리를 시작으로 마을 청년들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 치즈를 테마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임실N 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수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푸드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별기에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콘텐츠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임실N치즈축제 운영두 제전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임실N치즈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청년기획단과 함께 임실N치즈축제를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견훤대 정밀 발굴 학술 자문회의

임실군, 건물대지 확인 · 삼국시대 집수시설 등 조사

임실군이 지난 19일 강진면 갈담리에 위치한 견훤대(甄萱臺)에서 정밀 발굴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후백제 문화유산 학술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정밀 발굴 조사는 고고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한수영)에서 맡았으며, 연구원은 2024년에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를 마쳤고, 올해 5월부터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견훤대는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담천과 섬진강의 분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

어서 주변을 조망하기에 매우 탁월한 곳이다.

이번 발굴 조사 결과, 견훤대 정상부에서는 안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건물대지가 확인됐으며, 삼국시대 집수시설, 조선시대 화궐묘와 토광묘, 그리고 정상부 주변에 석축 등이 조사됐다.

유물은 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와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기와는 섬진강 유역 백제 기와의 제작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실 상미산성, 순창 대모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학술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정성기 무주대원도박물관장, 강원종 세계문화유산연구재단 연구원은 한결같이 견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발굴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주목했다.

다만, 여타 시군 내 후백제 문화권 유적과 비교 연구를 통해서 견훤대의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감승현)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은 어지럼증, 구토, 의식 저하, 고열 등 다양하며,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즉각적인

119 신고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영유아, 야외작업 종사자 등은 온열질환 위험군에 해당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남원소방서는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한낮에는 외부 활동을 피하고, 어린이



나 반려동물이 차량 등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전한 여름나기 종합대책 추진

남원시, 노인복지시설 집중 점검 등 어르신 보호 선제적 대응 나서

남원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 폭염 시기를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총 498개소의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3개소),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특성과 여름철 기후 위험에 맞춰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2025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으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총 55개소에 △하절기 대비 상태 △감염병 및 급식 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 △화재 등 비상시 피난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6월 16일까지 모든 시설의 자체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재해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관내 23개 읍면동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 △어르신 안전확인 △상황보고 체계 유지 △안전수칙 적극 홍보 등을 하고, 오는 9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제적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498개소에 대해서는 폭염·폭우 집중기간인 6월 20일부터 8월 31일

까지 기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주말 및 공휴일에도 09시부터 21시까지 개방, 무더위쉼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되며, 시에서는 냉방기기 사전점검과 냉방용품 비치, 응급물품 확보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서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침수 위험 여부 확인 △우기 대비 안전 안내 △응급 상황 시 대피요령 안내 △비상연락망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도 함께 지원하여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부터는 여름철 폭염 및 호우주의보 등에 대비해 어르신 건강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실외 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매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폭염 대응 물품(쿨토시, 선풍기 등) 배부 등을 통해 혹서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시설과 관련 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0회 회문산 해원제 거행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에서 6·25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20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엄숙히 거행됐다.

이번 행사는 회문산 제전위원회(위원장 김운석)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6·25 당시 회문산 일대에서 희생된 순국선열과 무고한 민간인의 넋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회 의장, 유가족, 군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헌화 및 분향, 위령제, 추념사와 추모사, 헌시 낭

송, 비목 제창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구림면 청년회 김현근 회원이 낭송한 헌시 '외로운 혼백을 위해'와 참석자들의 '비목' 합창은 숙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마지막으로 제773부대 3대대 장병들의 조총 발사가 이어지며 예를 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비목 제창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구림면 청년회 김현근 회원이 낭송한 헌시 '외로운 혼백을 위해'와 참석자들의 '비목' 합창은 숙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마지막으로 제773부대 3대대 장병들의 조총 발사가 이어지며 예를 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남원시보건소가 비만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운·완은 줄바덴스와 필라테스 같은 고강도 운동을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며, 만 19부터 64세까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은 인원 충원 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체성분 검사를 받고, 체지방률 조건(남성 25% 이상, 여성 30% 이상)에 해당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7월과 8월 두 달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보건소 2층 기공체조실에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작업 재해 예방 기반 강화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농업인 재해 안전 마을 육성 시범사업'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사업에는 송동면 연산마을 주민 37명과 해돋이 상추작목반 소속 농업인 19명, 총 5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에게는 농작업 안전교육과 작목 및 마을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엔진분무기 등 28종)와 안전보조구(농약방제복 등 14종)를 지원했다.

특히, 작목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장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약중독 및 기계 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보급된 장비의 활용 실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직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렸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